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위협이 되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혼률 증가를 비롯한 가정 질서의 혼란과 학교폭력 및 왕따 등으로 대표되는 학교에서의 위협들, 학력지상주의와 과외 및 학원 열풍으로 인한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넘어야 할 심리내적 및 외적 장애물들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노력은 학교환경 및 가족차원에서의 개입, 그리고 개인내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존재이며, 또한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개인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개인내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모색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스트레스 상황 중에도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 수준을 유연성 있게 조절하면서 기능을 유지하고 부정적 정서경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인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하였다. 탄력성은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던 아동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다양한 병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하게 기능하는 성인으로 적응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관심을 받게 된 개념이다. 이러한 탄력성을 토대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방법을 찾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속적인 탄력성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탄력성을 통한 집단분류를 하고 이러한 집단 간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다양한 임상적 문제들의 발생 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탄력성 개념의 유용성을 밝히고 관련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탄력성의 정의

Block과 Block(1980)은 정신역동적 이론에서 설명하는 역동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적응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발전시키고, 광범위한 행동들에 대한 예언을 가능케 하는 성격특질로서의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특히 좌절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 환경적 맥락의 요구에 대해 자아통제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즉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대해서 자아의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모드를 수정할 수 있는 역동적 능력이다. 탄력적인 사람은 새롭거나 미해결된 상황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수준이 낮고 통합적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Gjerde, Block & Block, 1986). 탄력적인 사람은 적응을 위해 다양한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과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재빠르고 환경이 허락할 경우 충분히 이완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은 스트레스나 변화로 인한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개입하고 긍정적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

성을 보인다(Block & Kremen, 1996). 반면 비탄력적인 사람들은 적응적 유연성이 떨어지며 변화나 낮은 상황에 반응하는데 있어 불안해하고 보수적이며 외상적 사건에서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다(Block, 2006).

이러한 탄력성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통제수준을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가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이상적인 적응은 충동에 대해 역동적이면서도 여유있게 조절과 균형을 이룸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은 가능한 과소통제적으로 되고, 필요한 한 과잉통제적으로 되는 것이다. 적응적으로 효과적인 것보다 과소통제적일 때 혹은 적응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잉통제적일 때 그 사람은 탄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Block과 Block(1980, 2006)은 내적인 충동에 대해 비교적 표현적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 가령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순간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거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과소통제형이라 했다. 행동 및 동기에서의 충동에 비교적 억제적인 사람들, 즉 과도한 욕구억제, 정서적으로 비표현적이고 불확실성에 불편해하고 순응적이며 참을성 있고 관심영역의 폭이 좁고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과잉통제형이라 했다. 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의 존재는 자아기능을 떨어뜨리고 자아통제수준의 유연성 있는 변화를 방해한다. 즉 상황특수적인 반응보다는 그 개인의 자동적인 익숙한 반응패턴인 과잉통제 혹은 과소통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유연성 있는 적응을 방해하게 되고 분화되지 못한 행동 레퍼토리를 갖게 한다. 그러나 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환경적 맥

락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수준을 수정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 능력, 개인의 심리적 평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의 변화로 개념화 되는 자아탄력성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거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한 개인의 일반화되고 성격화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 다른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탄력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성격특질적 관점이 아닌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관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Garmezy(1993)는 탄력성을 높은 위협이나 만성적 스트레스,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또한 특정인에만 존재하는 성격특성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스트레스원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변화하는 특징이라고 했다. Luthar와 Cicchetti(2001)는 탄력성이란 성격특성이 아닌 역동적 과정이며, 전 생애의 맥락에서 발달적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개인-환경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특성이라고 했다. 즉 탄력성은 지지적 환경의 맥락 안에서 선천적 요인들과 경험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이므로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른 탄력성 연구는 적응이나 발달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주로 역경 가운데서 성공적

적응을 이룬 개인에 대한 표본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적 입장에서의 연구에서는 탄력성 정의의 기준인 개인의 삶의 위협요인과 탄력적 적응, 즉 좋은 적응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학자간 일치하지 않는 등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Maste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성격적 특질로 정의하고자 한다. Block(2006)은 30년간의 장기종단 연구를 통해서 유아기의 탄력성 수준이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Robins et al, 1996; Asendorpf, 1999; Van Lieshout, 1995; Huey & Weisz, 1997)은 탄력성 개념을 통해서 각 개인이 변별력 있게 분류가 되며 이것은 이후의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를 일관성 있게 예언해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성격의 독특성과 일관성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탄력성이 개인의 성격특질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탄력성에 따른 집단분류

Block(1980)은 성격특질로서의 탄력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한 성격적 집단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는 탄력성과 자아통제성 개념을 통해서 탄력적인 집단, 비탄력 과잉통제 집단, 비탄력 과소통제 집단의 구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제안을 했다. 이후 몇몇 연구자들은 탄력성을 통해서 Block이 제시한 것과 같은 성격유형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렇게 분류된 유형 집단들이 기

존의 성격검사들을 통해서도 변별가능한지를 검증하였다. Robins, John, Caspi, 그리고 Moffit (1996)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CCQ(California Child Q-sort, Block & Block, 1980)를 통해서 성격유형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세 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들은 각각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성 개념의 다른 조합을 보였고 5요인 성격에 있어 고유한 특성들을 보였다. 첫 유형은 탄력성은 높고 통제성은 중간 수준으로 잘 적응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탄력성이 낮고 과잉통제된 방식으로 세상에 접근하고 적응하는 유형이며, 세 번째 유형은 탄력성이 낮고 과소통제된 방식으로 세상에 접근하고 적응하는 유형이다. 첫 유형의 5요인 성격 프로파일은 높은 수준의 적응과 대인관계나 과제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기능을 하며, 상황적 요구에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탄력적이고, 중간수준의 자아통제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향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억제되어 있어 자신의 충동과 욕구에 대해 불필요하게 제한적이다. 이것은 Block(1980)의 취약한 과잉통제형의 특징인 “세상이 위협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불안해하고 경직되어 있어 압도되어 있으며 걱정하는 경향”과 유사하다. 세 번째 유형은 역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서 쉽게 표출하며 사귀기 힘든 경향이 있다. 또한 충동적이고 자신의 충동과 욕구에 대해 부적절하게 표현한다. 이것은 Block(1980)의 취약한 과소통제형 즉 “충동이 조절되지 않고, 안전부절하며 쉽게 혼란에 빠지고 과도하게 표출적인 경향”과 유사하다.

이러한 성격의 세 유형 분류는 Asendorpf와

Aken(1999)이 독일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9년간의 장기종단 연구, 네덜란드에서 van Lieshout, Haselager, Riksen-Walaven, 그리고 van Aken(1995), 아이슬란드에서 Hart, Hoffmann, Edelstein, 그리고 Keller(199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Caspi(1998)는 CCQ가 아닌 다른 척도들을 통해서도 탄력성을 통한 세 가지 성격유형 분류가 가능함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구형모 등(2001)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탄력성에 따른 세 집단 분류 연구를 실시했다. 자아탄력집단은 자아탄력수준이 높고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격특질은 외향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과소통제집단으로 명명된 두 번째 집단은 자아탄력수준이 낮아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과소통제적인 성향이 있으며 성격특질은 외향적이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실성이 부족했다. 세 번째 집단은 자아탄력성 정도가 낮아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하였으며 과잉통제경향이 있어 과잉통제집단으로 명명되었고 이들의 성격특징은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실성이 부족하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하였다.

탄력성 집단에 따른 적응의 차이

탄력성을 통한 성격유형 분류는 탄력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각, 즉 성격적 특질로서의 탄력성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탄력성을 정의하는 입장 간의 논쟁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탄력성을 통해서 차별성 있는 성격집단 분류가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성격특질로서의

탄력성의 효용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탄력성의 차이가 이후의 적응의 문제를 변별할 수 있다는 데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겠다. Robins 등(1996)의 탄력성에 따른 성격 유형 분류 연구에서는 각각의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적응수준의 차이를 또한 보고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집단별 지능, 학교적응, 비행, 정신병리의 차이를 본 결과 탄력집단은 지능이 높고 학교적응을 잘 하며 비행이나 정신병리가 적었다. 반면 과잉통제집단은 다른 부분은 탄력집단과 비슷하나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높으며 과소통제집단은 학교적응, 비행, 정서적 문제를 보였다.

Huey & Weisz(1997)는 임상집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탄력 자아과소통제는 외현화 문제(공격성, 과잉행동, 행동화와 관련된 문제들)를 예언하며, 비탄력 자아 과잉통제는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 사회적 철회)를 예언해준다고 했다. Block & Gjerde(1990)는 자아 과소통제인 아동들은 비행행동패턴을 보이며 욕구지연에 어려움을 보였고, 청소년기에 심각한 약물남용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탄력 자아 과잉통제는 청소년기의 우울증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Block(2006)은 유치원 시기에 과소통제인 아동은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하는 경향이 높고 유치원 시기에 과잉 통제였던 여자 아동은 청소년기에 우울을 많이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과소통제에 비사회적이고 공격적이고 자기과장적인 남자아동은 청소년기에 역시 우울한 성향을 보이며, 연령 증가에 따른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상관 관

계에 있음을 보고하고 했다. Kwok, Hughes, 그리고 Luo(2007)는 읽기 시험에서 중간 이하의 성적을 보인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4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탄력적인 성격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탄력적 성격은 아동의 읽기와 수학성취도에 예언력을 보였으며, 이는 인지적 능력, 외현화 문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영향보다 컸다. 이러한 영향력은 1년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읽기 점수가 낮은 아동의 경우 수학점수보다는 읽기에 대한 예언력이 보다 컸다. Funder와 Block(1989)은 자아통제, 자아탄력성, 지능이 청소년의 욕구지연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통제, 자아탄력성, 지능은 욕구지연과 정적 상관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욕구지연능력은 다양한 적응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Mischel, Shoda, 그리고 Peake(1988)는 취학 전 아동의 욕구지연 능력이 청소년기의 인지적, 사회적 유능성,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을 예언해 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4, 5세 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아동들은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언어적으로 유창하며 논리적이고 주의깊고 계획성 있고 좌절과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처할 줄 아는 청소년으로 성장한다고 보고했다.

Eisenberg 등(2001, 2003, 2005)은 통제력과 부정적 정서경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실시했다. 그에 의하면 통제수준이 낮은 아동은 정서표출성이 높고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크며 분노, 좌절, 적대감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외현화 문제를 많이 보인다. 통제수준이 높은 아동은 정서표출성이 낮으며 슬픔,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많이

보인다.

김윤희, 황순택(200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 강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된 위협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고 했다. 부모갈등의 강도가 증가할 때 자아탄력-고집단과 자아탄력-저집단 모두에서 외현화 문제가 증가했으나, 자아탄력-저집단이 자아탄력-고집단에 비해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지각된 위협이 증가할 때 자아탄력-저집단은 외현화 문제가 뚜렷하게 증가했으나 자아탄력-고집단은 외현화 문제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 즉 아동의 부적응 수준은 부모갈등의 특성뿐 아니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중재적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수현, 최혜림(2007)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 즉,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규범준수 등을 잘 한다고 했다. 김옥선 등(200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에 대한 태도 등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특질인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표본집단에서 동일한 양상의 집단분류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집단간에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발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성격특질로 정의하고 연구를 실시한 경우가 매우 적으며, 유일하게 구형모와 황순택(2001)의 연구에서 탄력성 집단분류 및 이들 집단간 성격특질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구형모 등(2001)의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국내에서도 성격집단 분류가 기존의 외국연구와 같은 양상을 보임을 밝히고 이들 집단 별 성격특질의 차이만 연구했을 뿐 집단간 적응의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성과 적응의 관계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문화적 차이 즉 사회전반적인 스트레스 정도, 학교생활에서의 개인의 선택의 자유로움과 사회적 허용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이러한 탄력성과 부적응의 문제의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탄력성 연구의 의의가 보다 분명해지고 이후 탄력적인 청소년들의 특성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세 집단 분류(탄력적, 비탄력 과잉통제, 비탄력 과소통제)를 해 보고, 이들 집단간 적응의 양상 즉,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Block이 제시한 가설적 성격개념인 탄력성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적응을 위한 또 하나의 연구되어야 할 주제로서의 탄력성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전 및 경기 지역 중학생 286명과 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담임교사 혹은 과목 담당 교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학생들은 실시 후 바로 수거하였고 학부모용은 다음날 학생들을 통해서 수거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12.95세(SD=

.86)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22명(77.6%), 2학년 30명(10.5%), 3학년 34명(11.9%)이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28명(44.8%), 여학생 158명(55.2%)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성 측정도구

아동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California Child Q-set(CCQ; Block & Block, 1980)를 구형모와 황순택(2001)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CQ는 성인용으로 개발된 California Adult Q-set(Block, 1978)의 문항내용을 연령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 인지, 행동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CCQ자아탄력척도는 33문항의 자아탄력문항과 자아취약문항들로 구성되며, CCQ 자아통제척도는 33문항의 과소통제 문항과 과잉통제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6문항은 두 척도에 중복되어 있어 총 문항수는 57개이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그렇다”(9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과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측정도구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김현경(2003)의 학교적응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학교에 대한 흥미(5개 문항), 학업성취도에 대한 태도(5개 문항), 학교규범준수(10개 문항), 교사와의 관계 문항(8개 문항)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

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측정도구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Achenbach와 Edelbrock(1991)이 제작한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를 하은혜와 오경자(1997)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도 연구를 하여 제작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YSR)의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 불안 점수의 합으로 측정하고, 외현화 문제는 비행과 공격성 점수의 합을 측정하였다.

문항구성은 사회적 위축 8문항, 우울, 불안 15문항, 비행 12문항, 공격성 20문항으로 총 5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3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15.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 요인분석 및 판별 분석을 통해서 집단분류를 하였고, 변량분석을 통해서 집단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성격유형에 따른 집단 분류

286명의 중학생들의 표본에서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CCQ자아탄력척도와 CCQ자아통제척도(구형모와 황순택, 2001) 결과에 대해 Q요인분석을 실시했다. Q요인분석에서는 변인대신 사람에 대해 CCQ 자아탄력척도 및 자아통제척도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하고, 결과로 나온 상관행렬을 요인분석한다. 이 분석법은 개인을 유사한 성격 프로파일별로 집단을 묶어준다. 이는 보통의 요인분석이 상관된 문항들을 집단으로 묶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분석결과로 나온 사람의 요인들은 피험자 집단을 유사한 성격특징으로 정의내리기 때문에 성격유형으로 해석되어진다(Robins 등, 1996).

Q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성 척도 점수의 자료행렬을 변환한 후 각 점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Z점수로 변환하였고(김현수, 원유미, 2000) 변환된 피험자들의 성격변인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식으로 성격유형을 추출해냈고, 몇 개의 요인을 뽑아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준거로 요인적용가능성(factor replicability)을 사용했다(Everett, 1983). 요인적용가능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표본을 무선적으로 겹치지 않게 반으로 나눈 후 각각의 집단에서 나온 요인계수들간의 상관을 비교하는 것이다(York & John, 1992). 이런 과정이 2개에서 5개 요인까지 실시되었으며, 표 1에 요인점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전체표본에 대해 3개나 4개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요인일 경우, 요인간 상관

표 1. 요인적용가능성: 요인점수들간의 상관

추출된 요인수	요인들간의 상관				
	1	2	3	4	5
2요인	.72	.20			
3요인	.92	.74	.78		
4요인	.96	.75	.58	.89	
5요인	.96	.52	.58	.89	.01

계수는 .92, .74, .78이며, 4요인인 경우에는 .96, .75, .58, .89로 나타나서, 3요인일 경우가 4요인일 경우보다 전체적인 요인계수가 더 높았다. 또한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내용을 비교한 결과 3요인일 때에 각 집단간 특징의 차이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요인으로 결정하였다.

각 개인들의 회전된 요인점수를 가지고 참가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요인점수는 각 참가자들의 성격특성이 자신이 속한 유형의 성격원형과 닮아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동질성과 독특성을 높이기 위해 Robins 등(1996)과 구형모 등(200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세 가지 준거를 적용하여 각 참가자들을 분류하였다. 즉 요인점수

를 가지고 각 요인에 분류하는 것으로 첫째, 피험자가 각 유형이 정의하는 성격특성과 충분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유형에서 최소한 .40 이상의 요인계수를 지녀야 한다. 또한 한 유형에 속한 피험자가 다른 유형과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둘째, 참가자들의 두 번째로 높은 요인계수는 가장 높은 요인계수보다 최소한 .20은 낮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 참가자들은 세 유형 모두에서 .40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준거를 통해서 286명 중 198(69.23%)명이 분류되었다. 유형1에 147명, 유형2에 28명, 유형3에 23명이 분류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위의 준거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표 2. 성별, 학년별 탄력집단 분류 및 차이검증

	탄력집단 (n=198)	비탄력 과잉통제집단 (n=41)	비탄력 과소통제집단 (n=29)	χ^2
남	90	19	9	2.24
여	108	22	20	
1학년	159	31	18	23.40**
2학년	23	5	0	
3학년	16	5	11	

**p<.01

이러한 참가자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집단과 CCQ 57문항을 이용해 판별분석을 실시했다(참조 Robins et al., 1996; 구형모 등., 2001).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어느 특정한 한 유형에서 최소한 .80 이상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69명이 추가로 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267명이 유형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198명이 유형1, 40명이 유형2, 29명이 유형3에 분류되었다. 분류된 세 집단은 성별로는 $\chi^2(2)=2.24$,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별로는 $\chi^2(4)=23.40$, $p < .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2).

세 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해석

각 유형을 정의하는 CCQ 문항들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 각 유형을 정의내리는 성격특성들을 알아보았다. 표 3에서는 CCQ 57개 문항이 각 집단에 대해 가지는 요인점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10개 문항과 가장 반대되는 10개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3에서 제시된 문항을 통해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1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안정되어 있고 주의집중을 잘하며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쉽게 회복하고 자신감과 탐구심이 있으며 맡은 일들을 잘 처리하여 신뢰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조절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2에 속하는 참가자들의 특성을 보면 쉽게 상처받고 걱정이 많으며 감정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잘 아픈 경향을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잘 맞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충동과 욕구에 대해 보다 더 억압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3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참을성이 없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화를 잘 내며 안절부절하고 침착하지 못하며 농담하기 좋아하고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투덜대고 토라지기도 잘 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충동과 욕구를 부적절하게 표현하며 보다 충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각 집단의 특징들과 Block과 Block(1980)의 이론적 틀에 따라서 집단 1은 자아탄력집단, 집단 2는 비탄력 과잉통제집단, 집단 3은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성

세 집단에서 나타나는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집단별 평균치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자아탄력성의 경우 $F(2, 265)=83.08$, $p < .001$, 자아통제성의 경우 $F(2, 265)=37.83$, $p < .001$ 로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의 경우 탄력집단과 비탄력 과잉통제 집단, 탄력 집단과 비탄력 과소통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자아통제성의 경우 탄력집단과 비탄력 과소통제 집단, 비탄력 과잉통제 집단과 비탄력 과소통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탄력성은 탄력집단이 비탄력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통제성은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은 Block과 Block(1980)의 자아탄력 개념과 개념적

표 3.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리고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CCQ문항

요인집수	CCQ 문항 (문항번호)
집단 1	
1.80	우리 아이는 편안함을 느낄만큼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다.(34)
1.71	우리 아이는 주의집중을 잘한다.(36)
1.63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보고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37)
1.60	우리 아이는 스트레스나 안좋은 일을 겪게 되더라도 바로 회복되거나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22)
1.59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듣고, 자기가 말한 것은 꼭 지킨다.(33)
1.51	우리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48)
1.45	우리 아이는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41)
1.33	우리 아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다.(56)
1.29	우리 아이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21)
1.24	우리 아이는 주변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으며 잘 해낸다.(19)
-1.34	우리 아이는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해 한다.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17)
-1.20	우리 아이는 아무 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금방 흥분하거나 성난 행동을 하게 된다.(53)
-1.15	우리 아이가 보이는 감정을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50)
-1.12	우리 아이는 신경질적이고 겁이 많다.(13)
-1.09	우리 아이는 장난감, 음식 또는 애정을 받지 못할까봐 아니면 충분히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28)
-1.08	우리 아이 기분은 너무 자주 빨리 바뀌어서 예측할 수가 없다.(27)
-1.04	우리 아이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마음이 자주 바뀐다.(26)
-1.03	우리 아이는 흥분하거나 화가 나면 그것을 다른 아이에게 표현한다. 화가 나면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다.(12)
-.99	우리 아이는 투덜대거나 토라지기를 잘한다.(52)
-.95	우리 아이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낀다. 자신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린다.(42)
집단 2	
2.20	우리 아이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5)
2.01	우리 아이는 놀림이나 비난을 받으면 쉽게 상처를 입는다.(43)
1.83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오랫동안 걱정하는 편이다.(14)
1.77	우리 아이는 감정을 억제한다. 자기 감정표현을 잘못하고 완고한 편이다.(18)
1.54	우리 아이는 사려 깊고 다른 아이들을 배려할 줄 안다.(2)
1.42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잘 도와준다.(4)
1.36	우리 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한다.(47)
1.12	우리 아이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행동으로 표현하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1)
1.12	우리 아이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곤 한다.(24)
.97	우리 아이는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41)
-1.71	우리 아이는 으스스대는 편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51)

표 3.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리고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CCQ문항

(계속)

요인집수	CCQ 문항 (문항번호)
집단 2	
-1.62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잘 괴롭힌다.(45)
-1.59	우리 아이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장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29)
-1.56	우리 아이는 공격적이다.(46)
-1.26	우리 아이는 모면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 규칙을 악용하려 한다.(10)
-1.24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비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32)
-1.17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자주 괴롭힌다.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비난을 자주 받는다.(57)
-1.15	우리 아이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이야기한다.(30)
-1.11	우리 아이는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8)
-1.09	우리 아이의 친구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친구가 자주 바뀐다.(7)
집단 3	
1.88	우리 아이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하려 한다.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 참을성이 없다.(35)
1.68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잘 지낸다.(6)
1.52	우리 아이는 투덜대거나 토라지기를 잘한다.(52)
1.32	우리 아이는 종종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가 있다.(40)
1.17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한 일에 자부심을 가진다.(11)
1.15	우리 아이는 흥분하거나 화가 나면 그것을 다른 아이에게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다.(12)
1.15	우리 아이는 유머감이 있다. 농담하는 것을 좋아한다.(39)
1.10	우리 아이는 물건을 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같이 나누어 쓰기도 한다.(16)
1.10	우리 아이는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해 한다.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17)
1.07	우리 아이는 고집이 센 편이다.(49)
-1.98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자주 괴롭힌다. 우리 아이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비난을 자주 받는다.(57)
-1.69	우리 아이는 수줍음이 많아서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기가 힘들다.(55)
-1.65	우리 아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기 전에는 꼭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다.(56)
-1.53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보고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운다.(37)
-1.41	우리 아이는 죄책감을 잘 느낀다. 심지어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난한다.(38)
-1.40	우리 아이는 주의집중을 잘한다.(36)
-1.40	우리 아이는 편안함을 느낄 만큼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다.(34)
-1.21	우리 아이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29)
-1.20	우리 아이는 감정을 억제한다. 자기 감정표현을 잘못하고 약간 완고하다.(18)
-1.12	우리 아이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5)

표 4. 탄력집단별 자아탄력성 및 자아통제성 수준의 평균차이 검증

	탄력집단a (n=198)	비탄력 과잉통제집단b (n=41)	비탄력 과소통제집단c (n=29)	F	Scheffé
자아탄력성	223.32(27.24)	177.51(19.74)	178.47(14.91)	83.08***	a>b, a>c
자아통제성	170.47(16.33)	176.34(14.64)	144.69(16.86)	37.83***	a>c, b>c

*** $p < .001$

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즉 잘 적응된 유형(유형 1)과 두 개의 부적응적인 유형들, 그 중 유형 2는 세상에 대해 과잉통제된 방식으로 접근하며, 유형 3은 과소통제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유형별 학교적응 및 정신병리

자아탄력성, 자아통제성, 학교적응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상관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자아통제성, 학교적응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간의 상관관계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변인간 상관계수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자아통제성($r = .22, p < .01$), 학교적응도($r = .30, p < .01$), 내재화($r = -.23, p < .01$) 및 외현화 문제($r = -.17, p < .01$) 모두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제성은 탄력성($r = .22, p < .01$), 학교적응도 중 학업성취($r = .12, p < .05$)와 학교규범준수($r = .21, p < .01$), 내재화($r = .12, p < .05$) 및 외

표 5. 자아탄력성, 자아통제성, 학교적응, 정신병리 변인간 상관관계

	자아 탄력성	자아 통제성	학교 적응	학교 흥미	교사 관계	학업 성취	규범 준수	정신 병리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자아탄력성										
자아통제성	.22**									
학교적응	.30**	.14*								
학교흥미	.22**	.04	.79**							
교사관계	.24**	.06	.81**	.56**						
학업성취	.28**	.12*	.75**	.55**	.38**					
규범준수	.20**	.21**	.74**	.42**	.38**	.52**				
정신병리	-.23**	-.02	-.31**	-.34**	-.15*	-.26**	-.27**			
외현화문제	-.17**	-.18**	-.36**	-.31**	-.18**	-.28**	-.40**	.82**		
내재화문제	-.23**	.12*	-.18**	-.28**	-.08	-.17**	-.09	.87**	.43**	

* $p < .05$, ** $p < .01$

현화 문제($r = -.18, p < .01$)와만 상관관계에 있었다. 그 외 학교적응과 내재화 문제($r = -.18, p < .01$) 및 외현화 문제($r = -.36, p < .01$)도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학교적응

일원변량분석을 통해서 세 성격 유형 간에 학교적응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적응의 총점은 $F(2,265)=5.22, p < .01$ 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척도별로 보면 교사와의 관계 $F(2,265)=3.52, p < .05$, 학업성취 $F(2,265)=5.51, p < .01$ 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이들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결과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총점이 탄력집단과 비탄력 과소통제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탄력집단이 비탄력 과소통제 집단보다 학교적응 특히 학업성취에 있어 높은 수행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는 변량분석결과는 유의하였지만

사후검증을 통해서 어느 집단 쌍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각 집단별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결과 외현화 문제의 경우 $F(2,265)=3.90, p < .05$, 내재화문제의 경우 $F(2,265)=4.96, p < .01$ 로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6). Scheffé 사후검증결과에 따르면 내재화문제는 탄력집단과 비탄력 과잉통제집단, 외현화 문제는 탄력집단과 비탄력 과소통제집단, 비탄력 과잉통제집단과 비탄력 과소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내재화 문제는 비탄력 과잉통제집단이 탄력집단보다 많고 비탄력 과소통제집단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외현화 문제는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이 탄력집단이나 비탄력 과잉통제집단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탄력집단별 학교적응도 및 정신병리수준의 평균차이 검증

	탄력집단a (n=198)	비탄력 과잉통제집단b (n=41)	비탄력 과소통제집단c (n=29)	F	Scheffé
학교적응도	83.33(10.42)	79.57(8.14)	78.14(7.93)	5.22**	a>c
학교에 대한 흥미	15.99(2.66)	15.38(2.42)	14.97(2.60)	2.50	
교사와의 관계	19.72(4.49)	18.04(4.28)	18.21(3.38)	3.52*	
학업성취	13.79(2.84)	12.83(2.21)	12.25(2.21)	5.51**	a>c
학교규범준수	33.84(3.29)	33.32(2.93)	32.71(3.17)	1.81	
정신병리합	75.99(12.06)	79.69(14.72)	80.52(14.58)	2.63	
외현화문제	41.43(6.68)	40.73(7.10)	45.04(8.41)	3.90*	a<c, b<c
내재화문제	34.56(7.77)	38.96(9.63)	35.48(8.51)	4.96**	a<b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는 Block과 Block(1980)이 제시한 성격특질로서의 탄력성, 즉 변화하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적 요구에 대해 자아통제수준을 유연성 있게 조절하여 심리적 균형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에 대한 것이다. 탄력성은 적응을 예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성격특질로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탄력성을 통한 집단분류 및 집단별 적응의 차이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탄력성이라는 성격개념을 통한 집단유형분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들 집단별 적응양상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 개념의 유용성을 밝혀보고자 했다.

중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자료를 Q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존의 연구와 같이 탄력집단, 비탄력 과잉통제집단,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또한 이들 세집단간에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성 수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집단분류 결과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의 경우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에 더 많은 수가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이들 집단별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학교적응 양상에서 차이를 연구하였다. 즉 탄력집단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가장 적게 보였으며 비탄력 과잉통제집단은 내재화 문제를,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은 외현화 문제를 각각 더 보였으며,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의 경우 비탄력 과잉통제집단과 내재화 문제의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외현화문제는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보였고, 내재화 문제는 비탄력 과잉통제집단이 탄력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보였으며, 비탄력과소통제집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탄력집단과 비탄력집단들 간에 전체 학교적응도,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탄력집단은 비탄력 과소통제집단보다 학교적응도와 학업성취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적응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서 자아탄력성이라는 성격특질에 따라 집단분류가 가능하며 이러한 집단유형별로 적응양상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 결과는 탄력적 성격과 병리적 문제 및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탄력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병리적 문제들을 차단하고 적응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탄력적 성격을 가진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탄력적 성격이 어떤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경로들을 거쳐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탄력성 및 통제성에 따라 집단분류를 한 결과 기존의 연구들(Robins, et al, 1996; Asendorf et al, 1999; 구형모 등, 2001)과 같이 세 집단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성별 및 학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한 가지는 한국에서의 중학교 3학

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많은 학업의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중학교 1학년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재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통제수준 및 탄력성에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면서 또한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그 스트레스가 없어졌을 때 잘 회복하는 능력이다. 즉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탄력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 후 탄력성과 통제성을 재측정해 본다면 보다 정확한 집단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설문에 응답한 중 3 피험자수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 3학생들의 수는 34명으로 222명인 중 1에 비해 현격히 적은 숫자이다. 따라서 표집의 오류에 의해 집단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학년별 집단분류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구형모 등(2001)의 연구에서는 중 3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중 3학생들이 비탄력집단에 포함된 비율이 더 높은 것과 관련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후의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과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세 집단의 탄력성과 통제성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탄력성은 탄력집단과 비탄력집단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성의 경우 과소통제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간에만 큰 차이를 보일 뿐 탄력집단과 비탄력 과잉통제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학생들에서 탄력집단은 탄력적이면서도 과잉통제의 경향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탄력집단의 경우 비탄력 과잉통제 집단과 적응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탄력집단은 통제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재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성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기의 욕구와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기보다는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과 학원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탄력적인 청소년들은 상황적 요구에 따라 과잉통제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이는 효과적 적응을 위한 선택일 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탄력집단의 과잉통제경향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다른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탄력집단은 중간수준의 통제성을 보인다고 한다 (Asendorpf & van Aken, 1999; Robins et al, 1996; 구형모 등, 2001). 따라서 탄력집단의 이러한 과잉통제경향성이 한국 학생들의 독특한 면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세 집단간 적응의 문제 중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양상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외현화 문제의 경우 과소통제집단이 더 높았으나 내재화 문제의 경우 과잉통제집단과 과소통제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과잉통제집단은 우울, 불안 등의 문제만을 보이지만, 과소통제집단은 외현화문제와 함께 우울, 불안 등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임

상장면에서도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우울과 불안 등을 함께 호소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입증되는 내용이다. 이는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킨 후 가정과 학교에서의 처벌 등을 겪게 됨으로써 좌절감과 함께 우울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학생들 중 신체조건이 우세하고 폭력적인 친구들이 있는 등 외현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맞는 경우 내적으로 불안정한 정서를 폭언, 폭력, 비행 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집단별 학교생활 적응을 보면 학교 적응전반과,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의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했을 때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Scheffé, 외에 Tukey, Duncan 등의 방법을 통한 분석에서도 동일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 중에서 학업성취도에서 탄력집단과 비탄력집단간에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탄력성과 지능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Robins 등, 1996) 및 탄력성과 학업에 관한 연구들(Kwok 등,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탄력집단은 지능이 높으며 욕구지연능력도 뛰어나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는 것이다(Funder & Block, 1989). 그리고 학교규범준수의 경우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 차이가 없기 보다는 응답자들의 응답과정에서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교사가 설문지를 실시했으며 설문지 중 상당수가 학생들의 이름

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이 거짓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검사실시과정에서 이름을 쓸 필요가 없으며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했으나 학생들이 설문지를 과제로 여겨 자신이 제출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름을 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보다 명확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학교에 대한 흥미,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표집대상과 시기에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본 연구는 중1학생이 피험자의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집 시기는 학기 초였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전체적으로 상승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친밀성이 전체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즉 입학초기라는 상황변인으로 인해 탄력집단과 비탄력집단간의 차이를 상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응의 차이는 탄력집단과 비탄력과소통제집단에서 나타나고, 탄력집단과 비탄력과잉통제집단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탄력과 잉통제집단이 겹으로 보이는 학교생활에서는 별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신병리적으로는 우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자아를 과잉통제함으로써 교사와의 관계나 학업성취 등의 학교적응을 현재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당면할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즉 이들은 잠재적인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안

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구대상이 대부분 중 1에 치우쳐 있어 전체 중학생을 대표하는 표본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설문지 시기가 적응이 완전히 되지 못한 학기 초이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다소 불분명한 결과들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탄력성 개념의 특성상 현재 스트레스 수준이 탄력성 및 통제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수준의 효과를 통제할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위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듯이 설문지 실시과정에서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질문내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비행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응답을 어렵게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성격적 관점에서의 탄력성 개념을 기초로 집단분류 및 집단별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발달적 관점에서의 탄력성인지 성격적 관점에서의 탄력성인지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한 가운데 척도사용도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명확한 개념 정의에 근거해서 성격적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이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탄력적인 청소년들과 비탄력적인 청소년들이 적응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보임을 밝히고, 탄력적인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모색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즉 탄력성과 적응의 깊은 관련성은 탄력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심리내적 기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가정 불화, 학교폭력 등의 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탄력적인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좋은 적응을 보이므로 이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상담장면에서 획득되도록 돕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현재 적응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비탄력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관심을 갖고 스트레스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의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탄력적 집단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적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인지적 과정, 정서조절 과정 등의 기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탄력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 및 예방 차원에서의 활용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형모, 황순택 (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45-358.
- 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43-362.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초등학생이 지

- 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1.
- 김헌수, 원유미 (2000). Q 방법론. 서울: 교육과 학사.
- 김현경 (2003). 결손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현, 최혜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 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 하은혜, 오경자 (1997). K-CBCL행동평가 척도의 표준화: 신뢰도, 타당도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하계연차대회논문집*, 66-71.
- Asendorpf, J. B., & Aken, M. A. G. (1999).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personality prototypes in childhood: Replicability, predictive power, and the trait-type iss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815-832.
-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 Block, J., & Block, J. H. (1980). *The California Child Q-Se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lock, J., & Gjerde, P. F. (1990).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pp.334-3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k, J. &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aspi, A. (1998).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In W. Damon (Series Ed.) &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311-388). New York: Wiley.
-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Reiser, M., Cumberland, A., & Shepard, S. A.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93-211.
- Eisenberg, N., Valientem C., Fabes, R. A., Smith, C. L., Reiser, M., Shepard, S. A., Losoya, S. H., Guthrie, I. K., Murphy, B. C., & Cumberland, A. J. (2003). The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and ego control to children's resiliency and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4), 761-776.
- Eisenberg, N., Zhou, Q., Losoya, S. H., Fabes, R. A., Shepard, S. A., Murphy, B. C., Reises, M., Guthrie, I. K., & Cumberland, A. (2003). The relation of parenting, effortful control, and ego control to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ity. *Child Development*, 74(3), 875-895.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verett, J. E. (1983). Factor congruence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8*, 197-218.
- Funder, D. C., & Block, J. (1989).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41-1050.
- Garnezy, N.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C.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e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pp.377-3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jerde, P. F., Block, J., & Block, J. H. (1986). Egocentrism and ego resilienc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spective-taking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423-434.
- Hart, D., Hof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95-205.
- Huey, S. J., & Weisz, J. R. (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415.
- Kwok, O., Hughes, J. N., & Luo, W. (2007). Role of resilient personality on lower achieving first grade students' current and future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61-82.
- Luthar, S. S., & Cicchetti D. (2001).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857-885.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g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87-696.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 Moffitt, T. E.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van Lieshout, C. F. M., Haselager, G. J. T., Riksen-Walraven, J. M., & van Aken, M. A. G. (1995). *Personality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원 고 접 수 일 : 2008. 3. 6

수정원고접수일 : 2008. 5. 31

게 재 결 정 일 : 2008. 8. 8

The Differences of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and School Adaptation by Three Ego-Resiliency Personality Types

Won-Ju Park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silient, overcontrolled, undercontrolled personality types and illuminate the differences of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and school adaptation by the three personality types.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Our results identified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Ego-resiliency and ego-contro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hree personality types. In the resilient type, there were significantly les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overcontrolled types, there were significantly more internalizing problems. In undercontrolled types, there were more externalizing problems. In terms of school adaptation, resilient types and nonresilient typ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ir levels of school adaptation, relation with teachers, and school achievement. Finally, the reasons why the ego-control did not differ in resilient and overcontrolled types, and undercontrolled type reveals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issue of overcontrolled types and the internalizing of problems was also discussed.

Key words : ego-resiliency, ego-control,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school adaptation